

GIST-송원대-광주산학융합원, 싱가포르서 글로벌 AI 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일환으로 대학생·연구원·기업 관계자 34명 참여 글로벌 AI 혁신 현장 연수... 구글 APAC 본부·아마존웹서비스(AWS)·웨스턴 로봇 방문
- 해커톤·기술 세션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글로벌 AI 실무역량 강화 기대



▲ 6월 30일(화) 싱가포르 AWS를 방문한 '2026학년도 글로벌 AI 기업 연계 융합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송원대학교, 광주산학융합원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구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6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 5박 7일간 싱가포르에서 '2026학년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연계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인재들에게 글로벌 AI 기술 동향과 산업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연구·산업 현장을 연계해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단에는 사업계획서 제출·발표·면접을 통해 선발된 ▲ 송원대학교 학생 20명 ▲ GIST 학생 4명을 비롯해 ▲ GIST 연구원 4명 ▲ 기업체 겸임교원 4명 ▲ 광주산학융합원 관계자 2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구글(Google),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거점이자 AI·디지털 분야 산업의 주요 기업과 연구 기관이 집적된 싱가포르를 방문해 AI 산업 현장과 혁신 생태계를 체험했다.

참여자들은 '구글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APAC) 본부'와 '싱가포르 AWS' 등에 방문해 현지 전문가들의 강연과 기술 세션에 참여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활용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구글 APAC 본부에서는 코딩 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노코드(No-Code) 실습과 조별 해커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별 미션 수행과 최종 발표에 참여했으며, 구글 기술 멘토들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또한 로봇 기술 기업인 웨스턴 로봇(Weston Robot)을 방문해 AI 기반 로봇 플랫폼과 산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AI·로봇 융합 기술의 실제 활용 현황을 확인했다.

김재관 GIST 앵커사업단장(창업혁신진흥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연구원, 기업 관계자가 함께 글로벌 AI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선진 산업 생태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세계 수준의 기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번 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교육과 산학협력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GIST, 송원대학교, 광주산학융합원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교류와 지역 맞춤형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